

일반농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순창군, 신규사업 공모 전국최다 9개 마을 50억원 신청... 성공 가능성 기대

순창군이 일반농어촌개발분야 마을만들기 내년공모에 전국최대 규모 9개 마을에 50억원을 신청하면서 성공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이 2019년도 마을만들기 분야 신규사업 공모에 신청한 곳은 구립 방화마을 종합개발, 읍 북실마을 자율개발 사업 등 9개 마을이다.

20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2013년부터 농촌현장포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군 전체 308개 마을의 5분의 1에 달하는 60개 마을을 사업 공모가 가능한 발전역량 예비단계 마을로 육성해 왔다는 점이 공모 선정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마을과 마을,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

적인 마을사업추진과 주민 역량강화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조성된 마을의 체계적 관리 성과도 군의 사업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팔덕면 월곡마을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현재까지 24개마을에 148억여원을 투자,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등 금판마을 에너지지킴이 센터 조성, 중산 덕산마을 도예체험관 건립, 북흥 비석마을 경관·생태 조성 등 5개 마을은 작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마을 자체 시설 운영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와 다양한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시민 교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북흥 석보마을 경관·

생태 조성과 지역 특산물의 체험·소득기반 조성을 진행 중인 쌍치 오룡마을도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구립 화암마을은 농촌생활전시체험관과 숲속교실 신축공사 등을 착수했고, 인계 가목마을, 북흥 동산마을, 쌍치 석현마을은 올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인 적성 괴정마을, 읍 무수마을, 구립 남정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추진을 준비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일반농어촌 개발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에도 9개 마을이 모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마을단위 신규공모 사업은 9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정규직 전환대상자 71명 임용장 수여식

임실군이 정부시책에 발맞추고 고용안정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일 심 민 군수는 정규직 전환심의 위원회에서 선정된 정규직 전환대상자 71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했다.

이번에 전환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지난해 7월 정부합동부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두차례의 전수조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군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범위를 확정, 현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두차례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아울러 부서장 평가와 결격사유 조항 등을 실시, 최종 적격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실시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는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의 후생복지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군은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 임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정원 및 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그동안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으로 신분이 보장된 만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임실군이 지구의 날을 맞아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군은 22일 지구의 날을 전후해 기후변화주간을 지정, 20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전직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며 공영차와 민원인 이용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에 대한 자제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행, 불법소각 특별단속, 지구의날 기념 캠페인, 22일 (20:00~20:10) 10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

22일 소등행사는 공공건물과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10분간 소등행사가 실시되고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심화된 미세먼지의 위기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기계 임대 활성화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농업용 지게차, 굴삭기, 스카더 등 소형 특수농기계의 면허취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임대 활성화를 열고 있다.

20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전년도까지 1,300여명의 소형 조종사면허 취득자를 지원, 올해 2018년도에도 1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기 전 면허 취득을 하고 있다.

올해 현재 72명이 취득 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임대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굴삭기임대가 2016년도에 618회 2017년에는 713회에 이르는 등 계속 이용 증가 추세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운암면 호수공원 관광객 발걸음 '재촉'

임실군 운암면 호수공원 일원에 연분홍색 꽃잔디가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운암면 호수공원은 지난 2014년도 운암면소재지 이주단지가 완료되면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사면 약 2Km구간에 꽃잔디 수만본을 심었다.

현재 육정호순환도로와 호수공원일원은 온 천지가 연분홍색 꽃잔디와 함께 울릉으로 주말이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에서 친구들과 소식을 듣고 호수공원을 찾은 김미경(31)씨는 "환상적인 꽃잔디와 농부들의 헛터모정이 한쪽의 그림과 같으며 호반의 도시 아름다운 운암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육정호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광

객들이 찾는 명소로 이름값을 하고 있다. 특히 육정호 순환도로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이름을 올려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봉어섬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국사봉 산책로 주변에 산 벚꽃과 진달래꽃이 장관을 이루어 등산 매니아는 물론 사진작가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한다.

오광덕 운암면장은 "육정호순환도로는 풍광이 아름다워 해마다 우리지역을 찾는 사진작가들과 헛터가 곳곳에 조성되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연인들이 소풍을 와 잠시 머물다 가는 명소 중에 명소로 꼽히고 있다."며 "4월 말일까지 절정을 이루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림같은 경관을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식·어울림 한마당

남원시, 난타공연 등

남원시는 20일 남원문화체육센터 다목적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했다.

지체장애인협회(회장 양홍석)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비장애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는 성일유엔아이 직원으로 구성된 기타공연을 필두로 수어공연, 난타공연으로 성대함 막을 열고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12명에게 수여했다.

또한, 2부 행사인 '우리 모두 한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의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짜릿한 경품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장 바깥에서는 휠체어 보장구 수리, 장애인복지종합서비스



남원시는 20일 남원문화체육센터 다목적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연다.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증대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회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팀기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트러 지력 취득
 응급처치 요원 지력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지력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력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